[보 문]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Vol. 32, No. 8 (2008) p.1255~1263

국립 고궁박물관 활옷 수본에 관한 연구

권혜진† · 홍나영

이화여자대학교 의류학과

A Study on Embroidery Design Patterns of *Hwal-ot* at the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Hea Jin Kwon† · Na Young Hong

Dept. of Clothing &Textiles,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2008. 4. 16. 접수)

Abstract

Study on *Hwal-ot*, woman's wedding robe of the *Joseon* Dynasty, has been limited to the Princess *Bock-on's Hwal-ot* and some folk remains. In this study, I tried to identify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Hwal-ot* by studying embroidery design patterns in the royal *Hwal-ot*. On Mar 26, 2007, I inspected total of 15 pieces of embroidery design patterns for *Hwal-ot* held at the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I classified them into three types of *Hwal-ot* by considering characteristics in embroidery design patterns as well as composition of embroidery design patterns held by the private. For the *Hwal-ot* embroidery design pattern type I, there is a calligraphy called 「Embroidery Design Pattern of Red Long Robe for *Jeo-dong* Palace」, which is presumed to be the embroidery design pattern of Princess *Deok-on*, the third daughter of King *Sunjo* and a little sister to Princess *Bock-on*. Its patterns are very similar to that of Princess *Bock-on's*, with similar flower patterns and treasure patterns, as well as overall stripy structure. The *Hwal-ot* embroidery design pattern type II maintains the same flower patterns and butterfly patterns as in the type I, but does not have the striped decorative. The *Hwal-ot* embroidery design pattern type III has illustrative design with waves and mountain at the background and a pair of water birds flying around lotus. In particular, the type III design has a nine phoenix pattern at the front part of the robe, illustrating nine baby phoenixes (four in the left, five in the right) under a mother phoenix, which is closer to characteristics found in the *Hwal-ot* embroidery design patterns at the end of the Joseon dynasty.

Key word: *Hwal-ot,* Embroidery design pattern, Nine phoenix pattern; 활옷, 수본, 구봉문양

I. 서 론

조선시대는 엄격한 신분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서민들에게 혼례 복식으로 궁중예복을 착용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형편에 따라 차이는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신랑은 관리의 복식인 사모(紗帽) 각대(角帶)에 단령(團領)을 입었으며, 신부는 치마저고리 위에 궁중예복인 원삼이나 활옷을 입을 수 있었다. 신분이 낮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신분의 복식을 입을 수 있었던 이러한 풍속을 섭성(攝盛)이라 한다. 이러한 풍습 때문에 조선시대 여성 혼례복인 활옷은 크게 궁중의 활옷과 민간의 활옷 두 가지 유형이 존재한다. 비록 그 재료와 솜씨의 차이는 있지만 궁중과 서민의 활옷은 모두 자수라는 아름다운 장식기법이 사용되었고, 색상 또한 궁중과 민간 모두 홍색을 사용했다.

†Corresponding author
E-mail: ramee@hananet.net

따라서 활옷은 특정 계층에 국한된 예복이 아닌, 모든 계층에서 향유할 수 있었던 혼례복이라 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 전해져 내려오는 활옷 유물은 조선 말기 민간 활옷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궁중 활옷으로는 복온 공주 활옷이 거의 유일하여 궁중 활옷 연구에 대한 연구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이다. 창덕궁 왕실 창고에 보관되어오다 현재 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활옷 수본은, 비록 완성된 복식 형태는 아니지만 활옷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자수 문양을 간직하고 있는 궁중 활옷의 밑그림이다. 따라서 궁중 활옷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귀중한 복식자료로 볼 수 있다.

고궁박물관 소장 활옷 수본은 이미 석주선(1971)의 『한국 복식사』 부록 편에 실려 알려져 있으며, 권경자(1986)의 「조선조 수본에 관한 연구」에서도 언급된바 있다. 하지만 이 두 연구 모두 단순히 활옷 수본의 소개에만 그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궁박물관 소장 활옷 수본 유물의 실견 조사를 통해 궁중 활옷 수본에 나타난 문양의 특성을 연구하고, 복온 공주 활옷을 비롯한 활옷 유물에 나타난 문양과의 비교 연구를 통해 활옷 문양의 변화 양상 등을 살펴보자 한다. 고궁 박물관 소장 활옷 수본 연구를 통해 활옷 연구에 대한 연구방법을 다양화 하고 궁중 활옷의 특징과 변화상을 밝혀 궁중 활옷에 대한 더 많은 연구 성과를 이끌어내는 것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II. 고궁박물관 소장 활옷 수본의 유형 분석

창덕궁 소장 활옷 수본은 석주선(1971)의 『한국복식사』 책 부록 편에 총 8점의 수본 도판이 실려 있고 권경자(1986)의 「조선조 수본에 관한 연구 논문」에는 총 9점의 수본 사진이 수록되어 있다. 2007년 3월 26일 본 연구자의 실견 조사결과 현 고궁박물관 소장 활옷 수본은 피지초직류로 분류되어 있으며 총 15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유물 실견 요청 당시 油紙 재질의 수본은 보존 상태가 좋지 않아 보존 처리 과정을 거친 후 실견 조사가 이루어졌다. 실견 조사 당시 수본의 상태는 매우 좋았으며 몇 점의 수본에만 얼룩이 남아 있는 상태였다. 선행연구에 몇 점의 수본 도판이 빠져 있는 이유는 당시 보존 상태가 좋지 않은 수본의 도판을 실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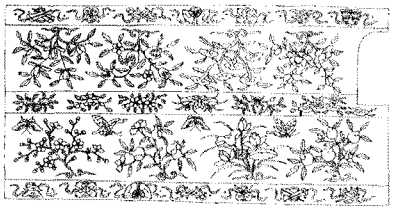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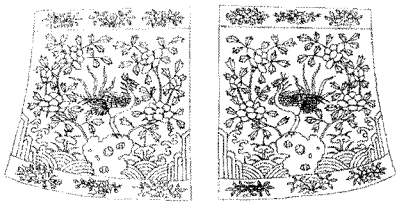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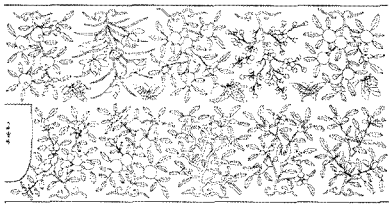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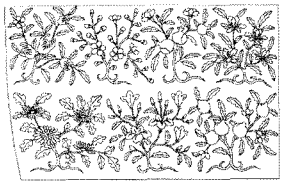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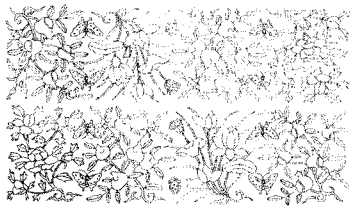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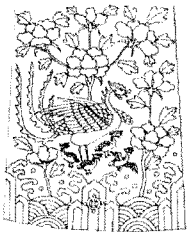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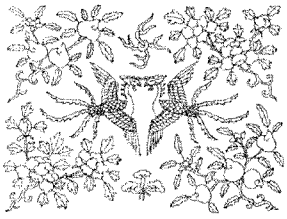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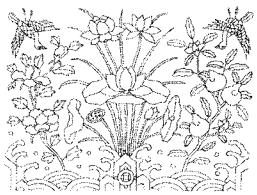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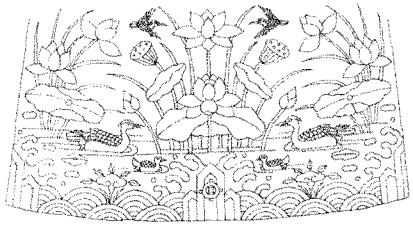
수본의 재질은 유지 위에 검은 먹 선으로 도판이 그려져 있었으며 몇 점의 수본에는 궁체로 수본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묵서되어 있어서 그 제작 의도와 수본이 사용되는 위치 등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다. 15점의 수본을 비슷한 유형의 수본끼리 모아 정리한 것이 <표 1>이다. 총 15점의 수본 중 12점은 양쪽 소매 혹은 좌, 우 몸판의 수본을 각각 따로 제작하여, 서로 좌, 우 대칭 문양을 이루는 수본 2장이 한 쌍을 이루고 있다. <표 1> 속 <그림 1, 3, 4, 5, 6, 8>의 총 6쌍의 수본이 이에 해당한다. 활옷 한 벌에 해당하는 수본끼리 분류되어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15벌의 수본이 총 몇 벌의 활옷을 위한 수본인지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본이 이루고 있는 문양의 특성이나 민간 소장 수본의 구성 등을 참고하여 <표 1>과 같이 총 3가지 유형의 활옷 수본으로 분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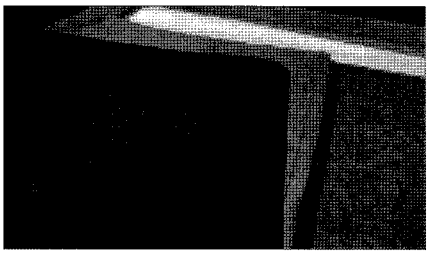
1. I형 활옷 수본(덕온 공주 활옷 수본)

총 15점의 고궁박물관 소장 활옷 수본 중 I형으로 분류한 수본은 선행연구에서 덕온 공주의 활옷 수본으로 발표된 활옷 수본들이다. 문양의 특성과 구도를 분석한 결과 <그림 1>의 I-1수본과 <그림 2>의 I-2수본이 활옷 한 벌을 이루는 도안으로 분석되었다. I-1수본은 서로 좌, 우 대칭을 이루는 수본 한 쌍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I-2수본은 좌, 우 대칭을 이루는 두 개의 작은 도안을 한 장의 종이 위에 함께 그려 넣어, 총 3점의 수본이 I형 수본을 이루고 있다.

석주선(1971)은 선행연구에서 I-2의 봉황문양 수본에 대해 "이 활옷 수본은 외명부의 것으로 수본에는 「밧댁활옷 수초 저동궁」이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보아 덕온 공주의 활옷 수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언급하고, 도판 옆에 「홍장삼슈초 저동궁 덕온 공주 활옷」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권경자 또한 이 수본에 대해 "외명부의 것으로 수본에 「밧댁활옷 슈초 저동궁」이라고쓰여져 있는데 밧댁은 궁에서 출가한 딸을 지칭하며, 슈초는 수본이고, 저동궁은 덕온공주가 살던 궁이므로 이 활옷 수본은 덕온 공주의 것임을 알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자의 조사결과 I-2의 봉황문양 수본에는 아무 묵서도 쓰여 있지 않았다. 고궁박물관 활옷 수본 중 「홍장삼 수초 저동궁」이라는묵서는 <그림 10>과 같이 I-2수본과 한 벌을 이루는 것으로 보이는 I-1수본의 뒤편에 쓰여 있었다. 유물 보존 처리 작업 시 묵서가 지워졌을 가능성은 없다는 고궁박물관측의 설명으로 보아 선행연구에서 묵서

<표 1> 고궁박물관 소장 활옷 수본 유형 분석표

I형 (3점)	 <그림 1> I-1(73.5×36)1쌍  <그림 2> I-2(30×30)
II형 (6점)	 <그림 3> II-1(70×40)1쌍  <그림 4> II-2(47.5×30)1쌍  <그림 5> II-3(66×37)1쌍
III형 (6점)	 <그림 6> III-1(23.5×29.5)1쌍  <그림 7> III-2(40.5×30)  <그림 8> III-3(38.5×30.5)1쌍  <그림 9> III-4(54×28.5)



<그림 10> I-1수본 뒷면 묵서

의 위치에 대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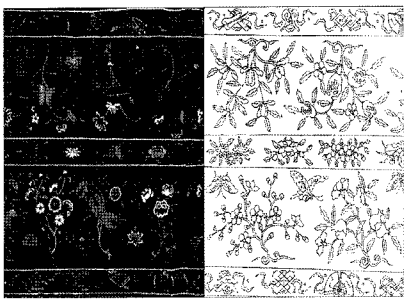
「저동궁」은 복온 공주와 7년 차이로 혼례를 올린 덕온 공주가 거처하던 공주궁의 명칭이다. 덕온 공주는 순조의 3녀로 복온 공주의 6살 터울 동생으로 1830년 복온 공주의 혼례 후 7년 만인 1837년 가례를 올렸다. 따라서 I형의 수본은 1837년 덕온 공주의 가례를 위해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장서각에 남아 있는 「덕온공주 가례등록」에도 "대홍광적 단노의"와 함께 "대홍광적 겹장삼"의 기록이 있다. 이때의 "대홍광적 겹장삼" 즉 홍장삼의 수본으로 파악된다.

1830년 혼례에 착용하였던 것으로 알려진 복온 공주의 활옷은 전면은 원앙금원문 금박장식과 자수가 함께 장식되어 있고 뒷면은 화문과 보문 중심의 자수 문양이 줄무늬 형태로 구성된 독특한 문양 구도를 취하고 있어, 일반적인 조선 말기 활옷 문양과 구성과 형태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7년의 차이를 두고 제작된 I-1수본의 덕온 공주 활옷 수본에 같은 유형의 문양이 나타나 있어 복온 공주 활옷에 나타난 자수 양식이 우리 고유의 자수 양식임을 밝히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1) I-1수본

I-1수본은 주 문양이 되는 여러 종류의 화문을 서로 마주보게 두 단으로 배치하고 그 중심과 위, 아래에 세 단의 좁은 띠 형태의 경계선을 긋고 그 속에 작은 화문과 보문을 배치하였다. 수본에서는 단순히 줄무늬 경계선으로 표현되어 있으나 이것이 자수로 시문될 때에는 금사를 사용해 징금수 기법으로 수를 놓아 전체적으로는 줄무늬 형태를 이룰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문양 구도는 <그림 11>에서와 같이 복온 공주 활옷에 나타나는 문양 구도와 동일한 특징이다.

중심 문양을 이루는 화문 또한 복온 공주 활옷에 나타난 자수문양과 같은 조형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 매화, 석류, 연꽃, 복숭아, 모란, 불수감, 불로초 등 여



<그림 11> 복온 공주 활옷과 I-1수본 문양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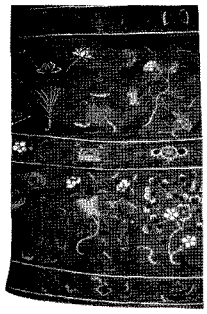
덟 가지 식물문양이 꽃과 열매 그리고 잎과 줄기, 뿌리까지 표현 되어 있다. 특히 일반적인 화문에서 잘 표현되지 않는 뿌리 부분을 율동미 있게 표현한 점이 큰 특징이다. 복온 공주 활옷에는 주문양인 화문 사이사이에 작은 화문이나 보문이 섞여 있는 반면 I-1수본에는 나비문양 외에 화문 사이를 채우는 문양이 사라진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좁은 띠무늬 속에 배치된 총 8종의 보문의 도안은 보문의 종류에 상관없이 모두 쌍으로 표현되어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한 쌍을 이루는 문양 형태를 통해 혼례복의 상징성을 더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덕온 공주 활옷 수본에 나타난 문양의 조형적 특징은 7년 전에 제작된 복온 공주 활옷의 문양에 비해 문양의 구성면에서는 단순화 된 경향을 살펴볼 수 있으나 보문의 경우 더욱 정교해지고 장식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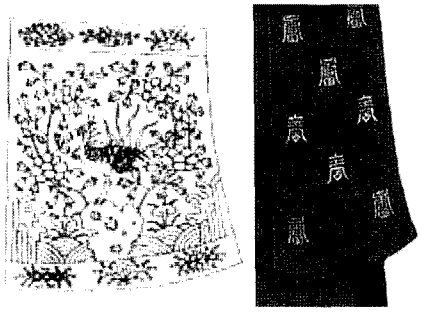
2) I-2수본

선행연구에서 덕온 공주 활옷 수본으로 지적된 I-2의 봉황문양 수본은 활옷의 좌, 우 앞자락 부분에 해당하는 수본이다. I-2수본 또한 주 문양이 되는 봉황문양의 위, 아래 부분에 I-1수본의 특징이 되는 소화문이 자리한 좁은 띠무늬가 나타나 있다. 비록 「저동궁 홍장삼 수초」라는 묵서가 적혀 있지는 않지만 문양 구성 양식이 같은 점으로 미루어 보아 I-1수본과 I-2 두 수본을 한 벌의 활옷을 위한 수본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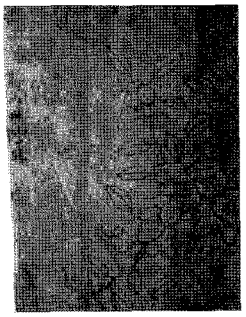
I-2수본에 나타난 봉황문양은 수파문과 산악문양을 배경으로 기암괴석 위에 좌, 우 봉황이 한 마리씩 올라 서있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모란꽃이 봉황의 좌, 우를 감싸고 있는 구도를 취하고 있다. 현재 전해지는 조선 말기 활옷의 경우 좌, 우 앞길과 양쪽 소매의 한삼 부분에 봉황문양이 위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그림 12>와 같이 복온 공주 활옷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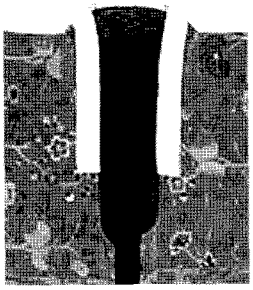
<그림 12> 복온 공주 활옷



<그림 13> I-1수본/덕온 공주 원삼



<그림 14> II-1수본 묵서부분



<그림 15> 복온공주 활옷 깃부분

앞길에는 봉황문양이 나타나지 않고 소매와 뒤 몸판 문양과 동일한 문양 구도가 가로로 배열되어 있다. 따라서 I-2수본에 나타난 봉황문양의 등장은 복온 공주 활옷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변화로 보인다.

전체적인 수본의 형태는 <그림 13>과 같이 밑 부분으로 갈수록 폭이 넓어지며 좌, 우 쪽 끝 부분이 살짝 위로 치켜 올라간 곡선 형태를 띠고 있다. 이는 덕온 공주원삼에서 보이는 19세기 초 궁중 원삼의 앞자락 끝 부분의 곡선과 비슷한 실루엣으로, <그림 12>의 복온 공주 활옷보다 유려한 곡선미를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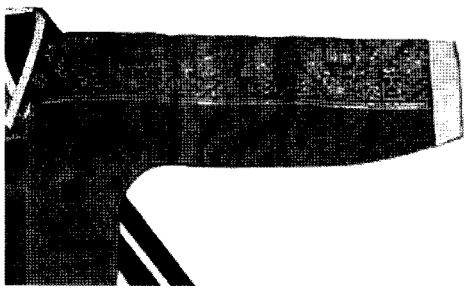
2. II형 활옷 수본

I형 활옷 수본에 나타난 문양과 같은 양식의 꽃문양과 나비문양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화문 사이 위치했던 띠무늬가 사라진 특징을 보이는 수본들을 II형 활옷 수본으로 분류하였다. 좌, 우 대칭을 이루는 수본 3쌍, 총 6점의 수본이 II형의 활옷 수본에 속한다.

1) II-1수본

<그림 3>의 II-1의 활옷 수본은 I-1수본과 크기도 비슷하고 문양의 구성 또한 비슷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좁은 띠무늬 유, 무의 차이점은 있으나 I-1수본과 II-1수본 모두 상, 하 두 단으로 분리된 화문들이 각각 중심을 향해 마주보게 배치되어 있으며, 두 수본의 한쪽 단 끝부분에 반 U자형 곡선이 그려져 있다. 또한 I-1수본과 II-1수본 모두 좌, 우 대칭의 문양 구도를 지닌 수본 2장으로 이루어진 한 쌍의 수본으로 구성 되어있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I-1수본과 II-1수본은 활옷의 같은 부위에 해당하는 수본으로 판단된다.

한 쌍의 II-1수본 반 U자형 곡선부분에 <그림 14>와 같이 각각 「소매당 좌, 소매당 우」라는 묵서가 적혀있어 어느 부위의 수본인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한 쌍의 좌, 우의 수본을 반 U자형 곡선부분이 중심이 되도록 서로 이으면 각각의 반 U자가 만나 완전한 U자형 곡선을 이루게 된다. 이때의 U자형 곡선은 활옷의 깃 선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활옷은 원삼과 달리 깃을 따로 만들어 달지 않고 배자 깃처럼 직사각형의 천으로 고대 부분만 막아주고 앞 깃 부분은 흰 동정을 넓게 대어 마무리 짓는다. <그림 15>와 같이 복온 공주 활옷 또한 고대 부분만 깃을 달아주었다. 하지만 앞판의 깃 부분을 직선으로 마무리 하지 않고 원삼 깃 형태의 U자형 곡선으로 마무리하고 좁은 동정을 달아주어 세련된 품격을 보여주고



<그림 16> 영왕비 당의

있다. I-1수본과 II-1수본에 나타난 U자형 깃선은 <그림 15>에서 보여지는 복온 공주 활옷의 깃 선과 같은 실루엣을 이루고 있다.

반 U자형 곡선이 활옷의 깃 부분에 해당한다면 나머지 자수문양 부분은 깃을 중심으로 좌, 우 즉 소매의 화장 부분을 장식하게 된다. 따라서 「소매당」이란 명칭은 깃을 중심으로 어깨에서 소매로 이어지는 즉 화장에 해당하는 위치를 일컫는 것으로 판단된다. I-1수본과 II-1수본을 가로로 길게 접어주면 마주 보고 있는 두 단의 화문 중 반 U자형 곡선 쪽 단은 어깨와 소매의 앞 판 쪽 부분이 되고 나머지 반대편은 어깨와 소매의 뒤 판 쪽 부분에 해당된다. 이렇게 앞, 뒤판 화장 부분을 길게 장식하는 장식단 형태는 기존의 활옷 유물에서는 찾아볼 수 없지만 원삼이나 당의 등 다른 여성 예복에서는 <그림 16>과 같이 금박 장식 형태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 I-1과 II-1의 수본은 활옷에도 화장 부분에 금박 장식과 동일한 형태의 자수 장식을 했었던 예를 보여준다.

2) II-2수본

좌, 우 대칭을 이루는 한 쌍의 수본으로 이루어진 <그림 4>의 II-2수본에는 <그림 17>과 같이 각각 「소매 아래당 좌, 소매 아래당 우」라는 묵서가 적혀있다. II-1수본의 「소매당」이 화장 부분에 해당 된다면 「소매 아래당」은 명칭 그대로 화장의 아래 부분에 해당할 것이다. 수본의 한쪽 끝 부분이 곡선 형태로 소매의 배래선을 곡선으로 처리한 형태를 나타낸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역시 <그림 18>에서와 같은 원삼의 소매 부분을 장식하는 금박 장식과 같은 형태의 자수 장식으로 판단된다. 활옷의 경우 일반적으로 앞판 쪽보다는 뒤 판 쪽에 문양이 배치되는 경우가 많아 좌, 우 소매의 뒤 판 아래 부분에 해당하는 수본으로 추측할 수 있다.

세부 문양구조를 살펴보면 두 단의 화문이 모두 위

<그림 17> II-2수본 묵서부분

<그림 18> 원삼 소매 아래당 금박

쪽을 향하고 있으며 나비 문양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수본에 나타난 7종의 화문에는 나리꽃이나 국화꽃 문양 등도 있어 복온 공주 활옷이나 I형 활옷 수본에서 볼 수 없는 다양한 화문으로 구성된 특징을 지니고 있다.

3) II-3수본

<그림 5>의 II-3수본은 모란, 복숭아, 연꽃, 석류 4종류의 화문과 나비 문양이 두 단으로 나뉘어서 중심을 향해 마주보며 방사형 대칭을 이루는 구도로 구성되어 있다. II-1과 II-2의 수본과 달리 설명이 되는 묵서가 없고 형태적 특징도 가지고 있지 않아 정확히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 수본인지를 추측하기 힘들다. II-1수본과 II-2수본은 각각 좌, 우 대칭의 구도를 지니는 수본 한 쌍으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 직사각형의 II-3수본은 동일한 도안의 수본이 한 쌍을 이루고 있다. 활옷의 구성상 좌, 우 대칭을 이루는 부분은 좌, 우 양쪽 소매와 앞 중심을 중심으로 좌, 우로 갈라져 있는 앞자락 등이 있다. 뒤 몸판의 경우는 좌, 우 대칭의 수본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II-3의 수본은 활옷의 뒷 몸판에 사용하기 위한 수본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사료된다.

3. III형 활옷 수본

III형의 활옷 수본은 I형과 II형에서 보여 지는 화문이 거의 사라지고 조선 말기 활옷의 아랫단을 주로 장

식하는 수파문양과 산악문이 나타나며 연꽃문양을 중심으로 한 쌍의 물새가 표현되어 있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조선 말기 활옷 문양 구도에 가까운 유형이 시작되는 단계적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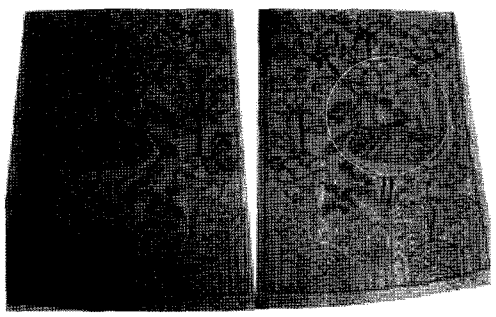
1) III-1수본

<그림 6>의 III-1수본은 활옷 앞길의 수본으로 I-2 활옷 수본 앞길에 나타난바와 같이 수파문, 산악문, 기암괴석문, 모란문양을 배경으로 봉황 한 쌍이 좌, 우로 배치되어 있다. I-2 활옷 수본에서는 단독으로 나타난 봉황 문양이 III-1의 수본에서는 각각의 어미 봉황 아래에 4마리와 5마리씩 총 9마리의 새끼 봉황이 함께 표현된 구봉문양을 이루고 있다.

하영임(1998)에 의하면 봉황문양은 수컷인 봉(鳳)과 암컷인 황(凰)이 한 쌍을 이루어 음양(陰陽)의 완전한 조화를 상징하는 새 문양으로 부부애를 상징한다. 봉황 부부와 함께 여러 마리 새끼 봉황을 함께 표현하는 구봉문양은 다복한 가정을 상징하며 다산을 기원하는 문양이다. 구봉문양은 봉황 한 쌍과 함께 7마리에서 많게는 12마리까지의 새끼 봉황이 함께 표현된다. 송안나(2006)는 구봉문양을 부부애를 넘어선 가족애로 발전된 오직 우리 문화에서만 볼 수 있는 봉황문양의 특징으로 보고 있다. III-1의 수본은 <그림 19>와 같이 좌, 우 대칭의 문양 형태를 취하고 있는 한 쌍의 수본으로 이루어져 있다. 어미 봉황 아래에 4마리, 5마리의 새끼 봉황이 표현되어 있는데, 앞길 왼쪽 자락에 한 마리의 새끼 봉황을 추가하면서 어미 봉황의 등 위에 타고 있는 형태로 표현한 점이 매우 해학적이다.

2) III-2수본

<그림 7> III-2수본은 중앙에 여의주를 중심으로 좌, 우에 날개를 활짝 편 한 쌍의 봉황이 마주보고 있는 구도로 배치되어 있다. 나머지 네 귀퉁이에 천도문양과 모란문양이 교대로 배치되어 있는데 I, II형 활옷 수본에서와 같이 뿌리 부분이 율동감 있는 곡선으로 표현되어 있다. 앞의 I, II형 활옷 수본의 문양 양식에서 크게 변화된 III형의 수본 속에서도 아직 I, II형 수본의 문양 특징이 남아 있는 부분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림 19> III-1수본

3) III-3수본

<그림 8>의 III-3수본은 좌, 우 대칭의 한 쌍의 수본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본의 크기와 문양의 구도가 좌, 우 대칭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소매 뒤 판 부분에 해당하는 수본으로 판단된다. 수본의 아랫단에 수파문과 산악문을 배치하고 중앙에 연꽃을 중심으로 좌, 우에 모란문과 천도문을 배치하고 있다. 그리고 한 쌍의 새를 좌, 우 상단에 거꾸로 배치하여 꽃을 향해 날아들고 있는 모습을 생동감 있게 표현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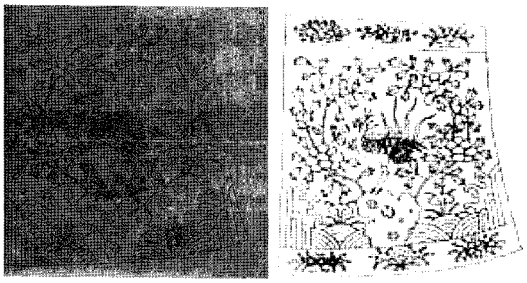
4) III-4수본

<그림 9>의 III-4수본은 형태로 보아 활옷 뒤 판 아래 부분에 해당하는 수본으로 판단된다. 수본의 아랫단에 해파문과 산악문을 배치하고 중앙의 연꽃 사이로 한 쌍의 어미 오리와 새끼 오리가 한가로이 노니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수본의 상단에는 한 쌍의 새가 연꽃을 향해 날아드는 모습을 표현하여 전체적으로 회화적인 구도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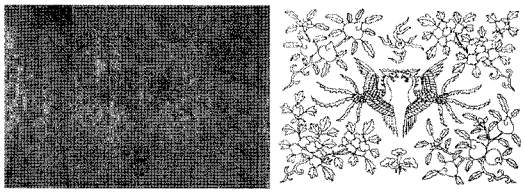
연꽃문양은 I형과 II형의 화문에서도 나타나지만 III-3과 III-4의 수본에서는 중앙에 크게 배치시켜 주문양으로 부각되어 있다. 연꽃문양은 불교의 상징화이면서, 생식 번영의 의미로 인해 오랜 시간 우리 민족의 폭넓은 사랑을 받아온 꽃문양이다. 조선시대 연꽃문양은 종교성을 떠나 끊임없는 생명력으로 인한 생명의 창조, 번영의 의미로 각종 공예품의 문양으로 애호되었다. 또한 연밥(蓮果)은 다손과 풍작을 상징한다. 조선시대 민화에서 연밥의 씨앗을 쪼는 새의 표현은 득남의 기원을 담은 것인데 이상희(1998)는 생명의 근원인 씨앗을 획득한다는 것은 곧 잉태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다.

5) 개인소장 활옷 수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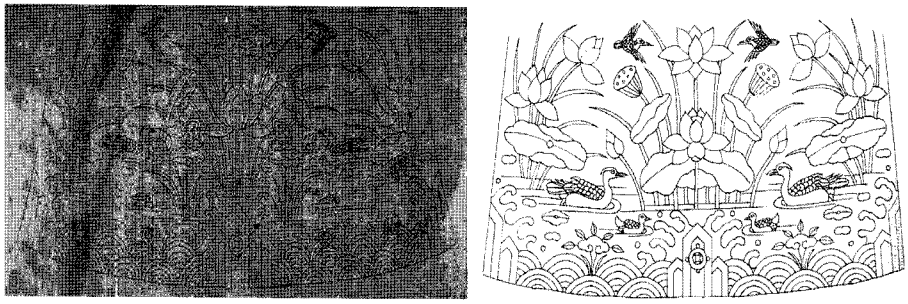
한편 III형 활옷 수본과 비슷한 유형의 개인소장 활옷 수본이 존재한다. 이를 III형 활옷 수본과 비교하



<그림 20> IV-1수본 / I-2수본 비교



<그림 21> IV-2수본 / III-2수본 비교



<그림 22> IV-3수본 / III-4수본 비교

면 <그림 20-22>과 같다.

<그림 20>의 IV-1수본에 나타난 문양은 중심의 기암괴석과 모란, 봉황 등의 형태가 I-2의 수본에 나타난 문양의 형태와 거의 일치한다. I-2 활옷 수본 문양의 큰 특징인 위, 아래의 장식선이 사라지고 없으며 수파문 사이에 표현된 모티브가 불로초에서 쌍서각문양과 쌍어문양으로 대치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한편 새끼 봉황이 함께 나타나는 구봉문양이라는 점에서는 III-1수본과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I형 수본과 III형 수본의 중간적 형태를 취하고 있는 수본으로 볼 수 있다.

<그림 21>의 IV-2수본은 III-2수본과 비슷한 문양 구도를 취하고 있다. 봉황새의 꼬리 깃털의 표현을 달리하여 암, 수를 구분하여주었고, III-2수본에 나타난 불로초 모티브가 꽃 광주리 문양으로 대치되었다. 네 귀퉁이에 배치한 화문 또한 모란, 불수감, 석류, 국화 문양으로 III-2수본에서보다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두 마리의 나비문양까지 더해주어 문양 표현에 있어서 III-1의 수본보다 세련된 기교와 세심한 표현이 돋보인다.

<그림 22>의 IV-3수본은 III-4수본과 거의 같은 문양 구도를 취하고 있다. IV-1수본에서와 마찬가지로 해파문 사이 불로초문양이 쌍어문과 쌍서각문양으로 바뀌어져있다. 중국 학자 황전신(2005)은 중국 한대부터 존재하는 쌍어길경(雙魚吉慶)문양은 부부의 행운을 축원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 결혼용품으로 많이 사용되었다고 하였다. 이들 문양을 통해 부부화합의 의미를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개인소장 활옷 수본의 문양은 III-3형 수본과 대응하는 수본이 전체 구성에서 빠져있는 점을 제외하면 III형의 수본과 거의 일치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문양의 표현에 있어서는 더욱 화려한 면을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I형과 III형의 사이쯤에 속하는 시기의 궁중 활옷 수본으로 판단된다.

III. 결 론

총 15점의 고궁박물관 소장 활옷 수본은 문양의 특성에 따라 3가지 유형의 활옷 수본으로 분류 할 수 있다. 각각의 유형별 수본에 나타난 특징을 통해 조선시대 활옷의 변화 양상을 분석해 낼 수 있다.

복온 공주의 동생인 덕온 공주의 활옷 수본으로 보이는 I형 활옷 수본에서는 복온 공주 활옷과 비슷한 유형의 화문과 보문이 띠무늬형식을 이루는 문양에 봉황문양이 등장하는 변화를 찾아볼 수 있다. II형 활옷 수본에서는 I형 수본에서 보문과 좁은 띠무늬 구도

가 사라지고 화문만 남은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아직까지 이러한 형태의 문양이 나타난 활옷 유물이 발표된바 없어 사료적 가치가 매우 큰 수본으로 판단된다. III형 활옷 수본에서는 구봉문양의 등장과 함께 회화적 구도를 가지는 활옷문양으로의 변화 형태를 찾아볼 수 있다. 백화포로 불릴 만큼 다양한 꽃문양 중심의 활옷에서 점차로 여러 가지 길상적 의미를 지닌 문양들의 조합으로 변해가는 양상을 통해 고궁박물관 소장 활옷 수본이 현재 활옷의 원형을 이루는 과정을 부분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문양의 구도 또한 금박 장식단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줄무늬 구도의 기하학적 구도에서 점차 이야기가 담긴 회화적 구도로 변화하고 마지막에는 온갖 기원을 상징하는 길상문양으로 가득 찬 충전식 구도를 이루는 것으로 판단된다.

고궁박물관 소장 활옷 수본에 나타난 묵서의 내용을 통해 문양의 특성 외에 다른 정보들을 찾아낼 수 있다. I-1수본의 「홍장삼 수초 저동궁」의 묵서는 19세기 초 궁중 혼례복인 홍장삼이 자수로 장식되었으며 현재의 활옷이 홍장삼에서 유래했다는 기원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된다. 또한 복온 공주의 동생 덕온 공주의 활옷 수본임을 밝혀 복온 공주 활옷에 나타난 문양과의 비교 연구를 통해 19세기 초의 활옷 문양 양식에 대한 특성과 변화상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II-1수본의 「소매당 좌, 우」라는 묵서를 통해 화장 부분에 해당하는 「소매당」이라는 복식부위의 옛 명칭을 알아낼 수 있었으며, 원삼이나 활옷 등의 화장 부분을 장식하는 금박단 형태와 같은 형태의 자수 장식이 활옷에 사용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고궁박물관 소장 활옷 수본에는 아름다운 문양 뿐 아니라 깃 부분의 파임이나 앞, 뒤 자락 부분의 곡선, 소매 배래선 등 수본이 사용될 부분의 바탕 형태 까지 나타나 있다. 수본이 자수를 위한 단순한 밑그림이 아닌 완성된 활옷의 실루엣을 고려한 패턴의 역할까지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궁중 활옷 수본은 당시 활옷에 나타난 문양 뿐 아니라 활옷의 실루엣까지도 엿볼 수 있는 자료가 된다.

고궁박물관 소장 활옷 수본은 비록 15점 밖에 전해지고 있지 않지만 3가지 유형의 독특한 문양 형태를 지닌 우리 고유의 자수문양을 보여주고 있다. 그만큼 여러 가지 양식의 활옷이 존재하였으며, 지금의 전통 활옷이 많은 변화 과정을 거쳐 현재의 원형을 이루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향후 고궁박물관 소장 활옷 수본 뿐 아니라 미 발굴된 민간 소장 활옷 수본의 조사 발표가 이루어져 전통 복식의 새로운 원형 제시와 활발한 창작 활동에 풍부한 모티브제공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권경자. (1986). *조선조 수본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석주선. (1971). *한국복식사*. 서울: 보진재.

송안나. (2006). *조선시대 후기와 에도시대의 직물에 표현된 봉황문양*.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덕온 공주 가례등록. (1874). *왕실도서관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 자료검색일 2007, 11. 5, 자료출처 http://yoksa. aks.ac.kr

이상희. (1998). *꽃으로 보는 한국문화*. 서울: 넥서스.

하영임. (1998). *한국 봉황문양의 변천과 조형성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황전신. (2005). *Design China Power 그 상상력의 비밀*. 서울: Notebook.